

농장취재 / 여름철 성적 우수농장 - 한아름 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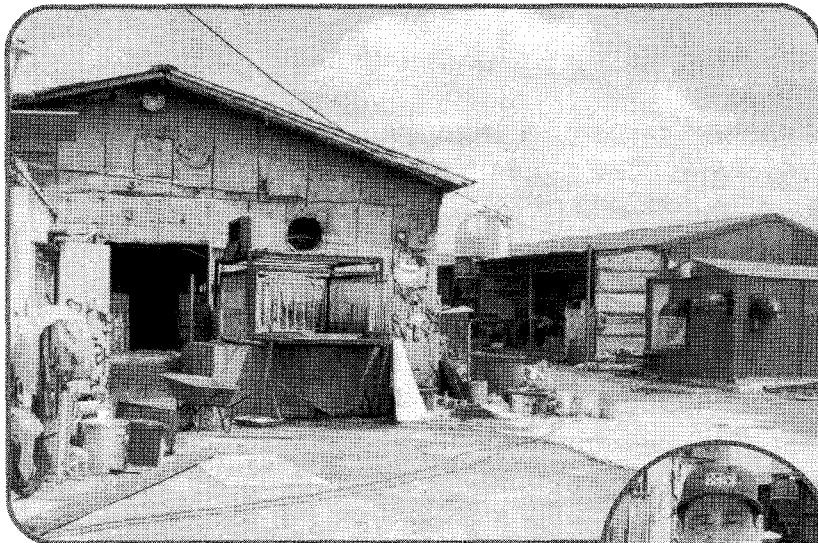
“여름철 관리는 모든의 사료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관건”

- 취재 : 조진현 -

가장 돈가가 높은 5~6월에 돼지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여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어떤 관리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여름철 성적이 우수한 농장을 찾아 그 비결을 물어 보자.

**연중 동일한 출하
두수 유지해
5~6월 수익 높아**

경기 파주 한아름 농장은 모돈 106두 규모로써 부부 내외가 양돈장을 꾸려나가는 실속있는 양돈장이다. 지난 해 한아름 농장이 5, 6, 7, 8월에 출하한 돼지는 모두 808두. 평균 202두를 판매했다. 지난 해 평균 월 판매두수인 181두보다 더욱 많



▲ 김갑신 사장(왼내). 뒤로 보이는 돈사가 우수한 시설은 아니지만 여름철 높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한아름 농장.



습하고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스트레스에 약하고 더위에 민감한 돼지들은 여름에 식욕이 크게 떨어지고 증체량이 감소한다. 또 번식성적이 떨어져 양돈장 연간 성적을 좌우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름철 성적관리는 양돈장 수익에 직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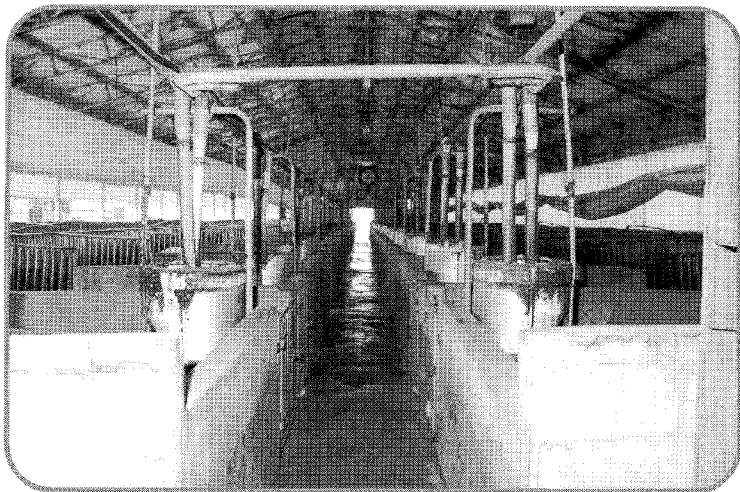
양돈농가들은 20%, 30% 후보돈을 늘리고 재귀발정과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 온도와 환기, 습도 관리에 갖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은 수치이다. 이렇게 봄철 고돈가 시기에 평소보다 많은 두수를 출하하기는 쉽지 않다.

또 한아름 농장의 지난 해 10월, 11월, 12월 분만 모든 복수는 63두. 평균 21두로 분만 복수 또한 2002년 연 평균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 5, 6월 판매두수도 지난해와 같은 균일한 두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11월, 12월 평균 산자수도 10.8두, 12.7두로 매우 높다. 다만 분만율은 다소 평균보다 낮은 70.6%, 65.7%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표 1> 참조)

한아름 농장 김갑진 사장



▲ 모돈에 점적 시설을 설치하고 여름 환기와, 하루 2번 수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른 농가들과 마찬가지로 여름철에는 종부두수를 20%~30% 늘린다. 지난해 여름철인 6, 7, 8, 9월 종부두수는 29두, 22두, 33두, 28두. 평균 종부두수 25두에 비해 다소 많다. 수태율 또한

75.9%, 77.3%, 75.8%, 82.1%로 평균 87.6%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여름철 성적저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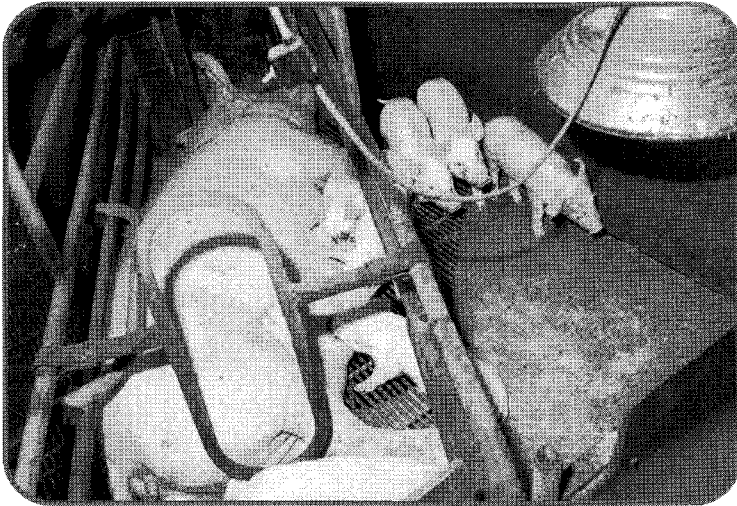
그러나 96년에 직접 지은 저렴하고 낡은 돈사에서, 부

<표 1> 한아름농장 여름철 번식 및 봄철 출하성적

항 목	2002년 6월	2002년 7월	2002년 8월	2002년 9월	2002년 평균
상시모돈수(두)	107	108	105	103	106
종부두수(두)	29	22	33	28	25
이유체중(kg)	6.6	6.8	6.6	5.7	6.3
복당 출하두수(두)	9.5	5.2	15.6	15.6	8.6
수태율	75.9%	77.3%	75.8%	82.1%	87.6%
비생산일수	3일	3일	3일	3일	2일

항 목	2002년 1월	2002년 2월	2003년 11월	2002년 12월	2002년 평균
분만복수(복)	18	28	12	23	21
분 만 율(%)	72.0	116.7	70.6	65.7	83.7
평균산자수(두)	11.8	12.5	10.8	12.7	11.7
총이유두수(두)	219	136	230	154	198

항 목	2002년 5월	2002년 6월	2002년 7월	2002년 8월	2002년 평균
출 하 두 수	179두	159두	165두	305두	181두
평균 체 중	113.8kg	116.8kg	112.1kg	112.6kg	114.0kg
매 출 액	41,601,000원	38,991,000원	34,669,000원	50,069,000원	35,393,917원



▲ 결국 여름철 관리는 모돈이 얼마나 사료를 잘 먹도록 해 주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부내외의 적은 노동력으로 봄철 출하두수를 평소와 같이 유지한다는 것은 여름철 관리가 매우 우수한 농장임에 틀림없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점적시설로 “모돈은 시원하게, 자돈은 춥지 않게”

한아름 농장의 여름철 관리의 키 포인트는 모돈에 대한 점적시설, 장마철을 제외한 하루 2번 수세, 스크레파 돈사의 특성을 이용한 온도관리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물론, 김갑진 사장의 성적이 높이려는 무단한 노력과 관심이 가장 우선되는 요소이다.

점적시설은 모돈사, 분만스톨사에서 실시되며, 스크레파 돈사의 잇점을 살려 자돈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까닭은 바닥이 모두 철조망 형태로 되어 있어 바닥이 질퍽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바닥에 있는 자돈들이 낮은 온도로 인해 설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

지 않는 것이다.

찬 바람을 불어넣거나, 심지어 에어컨을 설치하는 농가도 있으나, “모돈에 맞게 온도를 낮추면 자돈들이 설사병 등 스트레스를 받고, 자돈 온도에 맞추면 모돈이 더위에 고생을 해 빠른 재귀발정이 오지 않고 임신율이 떨어진 다”는 것이 김 사장의 말이다.

그래서 김 사장은 여름철 모돈 온도관리에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점적을 꼽는다. 그러나 “돈사 시설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고 김 사장은 덧붙인다.

한아름 농장의 재귀발정율은 5일 이내 70%, 일주일 이내 90%에 달한다. 여름철에도 일정한 두수가 분만되어 돈사가 비거나 돼지가 밀리지 않



▲ 폐사를 줄이기 위해 초기 이유자돈사를 컨테이너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는다.

또 부인인 서경숙씨는 습기가 많은 장마철을 제외하고 여름철 하루 2번씩 소독을 겸한 수세를 실시한다. 전체가 바닥이 망으로 되어 있는 분만사는 고압세척기에 의해 수세를 실시하더라도 바닥에 남지 않고 금방 빠져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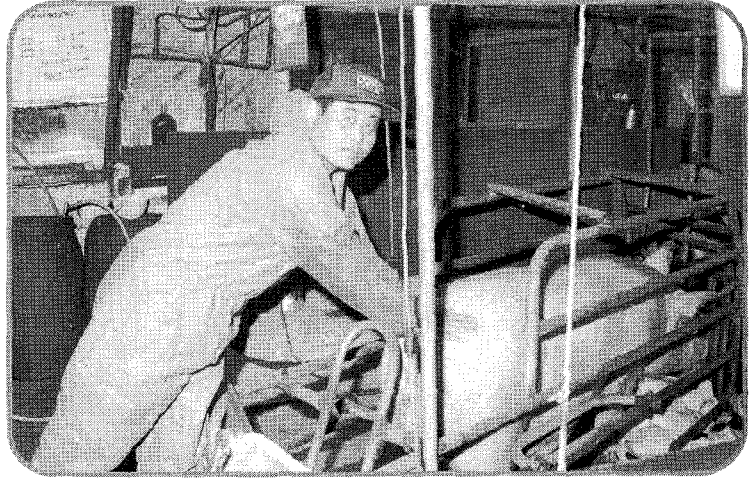
분만사에는 또 에어쿨(정부지원 소독 및 환기시설)을 이용해 소독액이나 물 없이 바람만 위쪽으로 불어준다. 바닥으로 바람이 갈 경우 앞서 말한대로 자돈 설사가 발생된다.

“모돈이 사료를 잘먹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

김 사장은 여름철 양돈장 관리의 가장 기본은 “모돈이 사료를 잘 먹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앞서 말한 여름철 관리 또한 ‘결국 온도조절로 모돈이 사료를 잘먹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전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장주의 많은 관심이 기본이다. 조금 몸이 안 좋은 모돈은 그 원인을 파악하여 즉시 처리한다.

또한 좋은 열량 사료를 급



▲ 모돈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 김갑진 사장

여해야 한다. 아무리 시원하게 관리를 해 준다 해도 다소 사료섭취량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10년째 퓨리나 사료를 써고 있는 김 사장은 여름철 썬머택 사료 등 특수 사료를 이용하기도 한다.

또, 앞서 말한대로 떨어지는 수태율을 보완하기 위해 20~30% 모돈을 늘리며, 13~15℃의 자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꼭 성적향상에 필요한 부분에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다른 일반적인 관리에 시간을 줄이는 우수한 시간관리 또한 인력이 부족한 한아름 농장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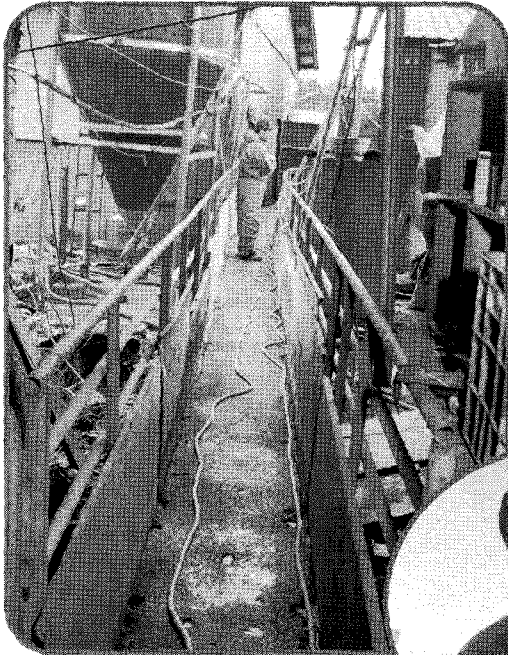
전체적으로도 김 사장 부부 내외는 양돈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면서 돼지에 정성을 쏟고 있다.

이런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한아름 농장에 맞는 관리방법을 만들었다.

위축돈, 따돈을 포함한 정확한 농장 성적 분석이 뒷받침

한아름 농장 김 사장이 전체적인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사양관리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철저한 농장분석과 자료정리를 통해서이다.

위축돈 한 마리, 사고돈 한 마리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김 사장은 현실성 있는 명백한 농장 분석이 가능하다. 그는 연말 전산자료 분석을 통해 농장 수익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름철 관리를 꼽았다.



▲ 4개의 돈사를 서로 통로로 만들어 돼지이동을 쉽게 하고 있다.

“우리 농장에서 복당 1마리를 더 출하될 경우 연간 4천만원 이상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연간 일정한 출하두수를 유지하기 위해 여름철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2003년 목표는 모돈 복당 10두 이상 이유해서 9두 이상 출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 사장은 지난 2002년 철저한 출하관리로 복당 출하두수를 1두 가량 높혔다.

김 사장은 올해 목표를 복당 9두 이상 출하, 회전을 2.4~2.5 사이, 170일에 112kg 출하로 잡고 있다.

또 “우리 집에서 돼지가 이렇게 많이 죽는지 몰랐다”며 여

름철 폐사로 인한 수익절감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말 전산자료를 분석해 보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내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 김갑진 사장

개선했을 때 실제 내 수익이 어느정도 생기는 지가 한 눈에 보입니다.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에 더욱 힘을 얻습니다”라고 김 사장은 이야기한다.

질병 등 외부적인 여건변화에 불안감

양돈경력 18년의 김갑진 사장이 최근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농장내의 성적보다는 외부적인 큰 여건변화이다.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그리고 분뇨문제 등 양돈정책의

큰 변화속에 생계인 양돈업에 불안감을 느낀다며, “열심히 하는 농가들이 안심하고 돼지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현재 다소 부채가 있지만 부채가 없을 경우 한아름 농장의 순수 생산비(감가상각, 인건비 제외)는 지육 kg당 2,200원 수준이다. “2,300원씩만 가도 두당 7천원으로 최소 생활비는 된다”며 “우리 양돈산업이 외부의 큰 변화만 없다면 아직 경쟁력이 있다”고 김 사장은 말한다.

여름철 관리는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모든 양돈농가가 여름철 관리에 노력을 쏟고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한아름 농장은 무창돈사나 시설이 매우 우수한 농장이 아니다. 차라리 김 사장이 직접 지은 낡은 시설이다.

그러나 이렇게 봄철 일정한 출하두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김 사장의 충분한 노력과 관심이라고 보여진다. ‘내 농장의 수익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에 관해 많이 생각하고 분석하여, 내 농장에 맞는 여름철 관리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돈**